



제목	Religion and Society in Qajar Iran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Routledge
발행일	2009. 12. 23.
저자	Robert Gleave(편집자)
출판국가	영국
페이지수	496
ISBN 또는 ISSN	978-0415573474

내용 요약

이 책은 카자르 시대의 종교, 사회문화적 측면을 연구한 여러 학자들의 21개 논문을 수록한 글이다. 다양한 주제들을 유사한 주제들끼리 묶어서 카자르 시대의 종교와 사회의 관계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면서도 카자르 시대의 종교, 정치사와 문화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기 위하여 19세기 이란의 종교 영역에 국한시켰다. 핵심 논제는 종교와 국가의 관계, 종교 사상의 발전, 종교적 소수파의 지위, 종교와 문화의 관계, 시아파의 성충화의 구심점과 국가의 관계 등이다.

책은 총 5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부는 카자르 시대의 종교와 국가를 다루고 있다. 카자르 시대 초기의 정치 윤리와 공법, 지하드와 종교적 합법성, 사파비조의 국가 종교적 행정 모델을 적용하는 과정과 지속성, 나시르 알 딘(Nasir al-Din 1848~1896) 치세 동안의 사법제도 등을 설명하고 있다. 2부는 종교 사상에 관한 것으로서 존재와 신성, 12 이맘에서의 정통 교리와 이단, 이란의 헌정 혁명의 이단적인 지식인들을 다루고 있다. 3부는 종교의 인기의 근원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4부는 종교적 소수파와 서구 선교사들에 대한 내용으로 크리스티교의 주장에 대한 시아파의 대응, 이란의 유대인들, 바하이(Bahai) 신앙의 권위와 여성 공동체의 역할 등을 설명하고 있다. 5부의 주제는 종교와 문화로서 테헤란에서 종교적 의식, 사회적 정체성과 정치적 관계, 종교와 의학, 타일에 나타난 종교와 인기 문화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다.